

## “모두 모여 마음을 나누고 그날을 기억하자”

지금부터 꼭 40년 전 받았던 배역이다. 마당극 '안담살이 이야기'의 주인공 안담살이. 김도일(60)씨는 옛 동료·후배들과 다시 맘 흘리며 연습중이다. 당시 일본 순사 역을 맡았던 윤만식(70)씨도 그 역할 그대로다. 스물 여섯살의 이채은 신명 단원은 코러스로 출연한다. 이들이 준비하는 공연은 '놀이패 신명 창단 40주년 기념-불혹: 흔들리지 않는다!' (30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만날 수 있다.

창단 멤버였던 김도일 신명 4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장과 정찬일 신명 대표와의 인터뷰는 신명의 마당극을 처음 접했던 대학시절을 떠올리게했다. '놀이패 신명'은 문화예술단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신명이 슬하에 공연했던 마당극 현장에서 함께 손 맞잡고 노래하던 기억들을 모으는 이들이 많고, 신명의 작품을 보며 예인의 길을 꿈꾼 이들도 있다.

마당극 전문극단 신명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공연, 전시회, 조형물 설치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모두 다 아우러지는 '대동세상'을 꾸꾸며 가치를 올렸던 문화운동의 태동기와 성장기를 기억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다짐의 자리이기도 하다.

"위원장님을 맡아 이런 저런 분들께 연락을 드렸는데 모두 신명에 대한 기억을 나눠주더군요. 엄혹한 시절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신명이 당시 그런 역할들을 했었구나 새삼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도일)

"40주년 행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을 때 어느 한 분 머뭇거리시는 이가 없었습니다.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지요. 선후배들, 후원자들, 시민들 모두들 모여 마음을 나누고 그날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정찬일)

놀이패 신명은 광주 최초의 사회·문화운동 단체였던 극회 '광대'와 기독교청년회 산하 문화선교단 '갈릴리'의 전통을 이어받아 1982년 창단했다. 두 단체 단원과 전남대·조선대 탈패, 전남대 연극반과 농악반 등이 아우러졌고 풍물, 탈춤, 민요, 소리, 연기 등을 소화하는 만능배우들이 모였던 신명은 언제나 민중과 함께했다.

창단 작품 '안담살이 이야기' 이후 '호랑이 놀이', '황토바람', '일어서는 사람들', '언젠가 봄날에' 등 지금까지 41회 정기공연을 진행했고 농촌의 수세싸움 현장, 참교육 현장 등 길바닥에서 슬하 공연을 펼쳤다. 또 1988년부터는 문화교실을 열어 목판화 강좌, 미술사, 풍물, 노래 강좌 등을 진행했고 이태호·정세현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 의미있는 순서는 감사패 전달인데 그 면면을 보면 신명의 오늘, 많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판화 교실 강사로 참여하고 로고·포스터 제작을 도왔던 홍성담·김경주 작가, 단원들에게 탈춤을 가르쳤던 채희완 전 부산대 교수, 류재

마당극 전문 '놀이패 신명' 창단 40주년...30일 ACC서 기념식·공연  
8월1일~9월30일 기념전...첫 텃자리 동명동에 조형물 설치  
극회 '광대' 전통 이어 창단...11월 국립극장서 '언젠가 봄날에' 상연  
'안담살이 이야기' 시작으로 5·18 '일어서는 사람들' 등 41회 공연



1982년 놀이패 신명 창단공연 '안담살이 이야기' 팸플릿

연 후원자, 신명에게 공간을 내어준 정은주씨, 그리고 전남도청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신명 뿐 아니라 광주를 찾는 '전국의 따따라들'에게 밥을 해먹었던 김도일씨의 모친 조화숙 여사 등이다.

인터뷰 중 접한 1982년 작 '안담살이 이야기' 낡은 팸플릿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당시에는 출연배우들의 이름을 실을 수 없던 시절이기도 했다. 또 대본 검열을 받아야했고, 붉은 줄이 쳐진 대본을 넘겨받았지만 현장에서는 '원래대로' 공연하곤 했다. 특히 전현직 단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았던 '안담살이 이야기' 대본을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고(故) 박인배 연출가가 간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이번 아카이브 전시에서 선보인다.

신명은 창단 후 10여차례 공간을 옮겼다. 중흥동에서 신명아트센터를 운영하기도 했고 2004년부터는 15년간 담양 폐교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맞은 편 건물에 둥지를 틀었다.

'신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5·18이다. '일어서는 사람들', '언젠가 봄날에', '꽃들 들어 임 오시면'은 오월 고정 레퍼토리로 감동을 전한다. 최근작 '식사 하세

오'도 5·18 당시 식사 준비를 맡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들은 각지에서 공연되며 '오월의 전국화'에 기여했고 2007년에는 '일어서는 사람들'을 일본 6개도시 무대에 올렸다.

현재 상근 단원은 4명이며 작품에 따라 작업하는 이들까지 합치면 12명이다. 전임 단원들은 '따로 또 같이' 작품을 한다. 문화판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서로 협업하며 마음을 모아 작업할 때가 많다.

"주 활동무대가 '현장'이다 보니 정형화된 무대에 작품을 올리는 것과는 다르죠. 무대 뒤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도 다니고, 갑자기 공연에 개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상황에서 흐트러지면 안되니 배우들의 몰입도가 좀 더 특화돼 있고 애드립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마당극의 묘미이기도 하구요." (정찬일)

1982년 국립극장에서 '돼지풀이'를 무대에 올렸던 신명은 40년만인 올 11월 다시 한번 '언젠가 봄날에'로 국립극장 하늘마당 무대에 선다. 9월에는 신명의 텃자리였던 동명동 가족화관 앞 공터에 기념조형물을 설치한다. 신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100여명이 십시일반 참여했다. 문화의 흔적, 기억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기억을 통해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30일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신명 4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총체극 '신명비하리' 공연이 이어진다. 동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일팔까지 민초들의 투쟁을 담은 신명의 대표작을 오피니언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정진모·추말·숙·장호준·지정남·김호준·김종일 등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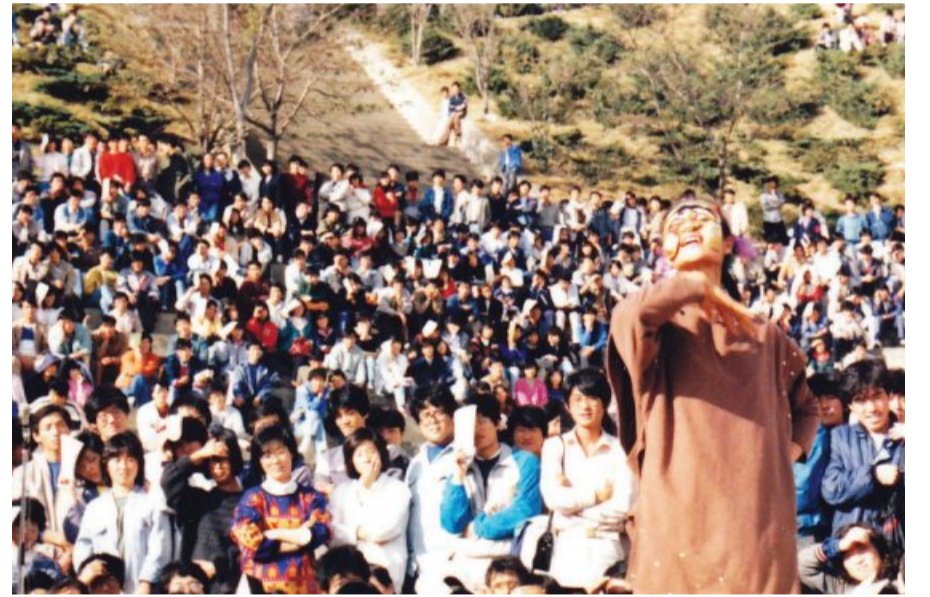
기념 전시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오월미술관에서 열린다. 범람이 오월미술관이 맡아 신명의 작품 사진, 광주민미협이 제작한 작품 걸개그림을 전시하며, 윤수안 감독이 제작한 신명 40년 역사 아카이빙 영상도 상영된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후원회원을 초청,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도 진행한다.

정찬일 대표는 "신명을 이정희 삼아 우리도 이렇게 가야지하는 마음을 동료 예술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신명의 행보는 광주 문화예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긴 여정의 등불일지도 모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극장에서 1982년 공연된 마당극 '돼지풀이'



마당극 '호랑이 놀이'



오월극 '언젠가 봄날에'

##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의 색채와 점

31일까지 양홍길 개인전

ACC디자인 호텔 갤러리

강렬한 색채와 자유로운 붓질이 인상적이다. 다양한 색감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화면은 그 속에 수많은 색을 감추고 있어 흥미롭다. 한국화와 서양화의 경계를 허문, 자유로움이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다.

양홍길 작가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ACC디자인 호텔 갤러리에서 열린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양 작가는 다양한 재료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구축해 가는 중이다. 정통 한국화 재료인 장지와 석채, 분채는 물론이고 아크릴 물감과 캔버스로도 작업하며 늘 새로움을 모색 중이다.

50호가 넘는 큰 작품에서 눈에 띄는 건 과감한 화면 분할로 만들어내는 조형적 재미다. 세로가 긴 작품들의 아랫 부분을 적절하게 분할한 덕에 한 화면에서 '두 개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하다.

작가는 무거운 검은색 화면으로 시작해 수많은 색을 집어넣으며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간다.

회화란 색감으로 무장한 '정원' 시리즈는 흥미롭다. 작가가 좋아하는 백인홍의 붉은 기운과 개나리의 노란 기운을 염두에 두고 작업한 그림은 본질을 흐트려 추상적 의미가 강해 보이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푸른 빛 정원, 노란빛 정원에 들어와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색의 겹침 사이사이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점도 흥미롭다.



31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열리는 양홍길 개인전.

양 작가는 "한국화라고 해서 전통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려한다"며 "의도적인 장식적 표현이 아닌 꿈이나 자연의 세계를 단순화해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정의 색채와 점을 형상화했다"고 말한다.

고려대 문화콘텐츠 전공 김광훈 교수는 작가의 작품에 대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동시대 일상을 화선지 위에 겹겹이 쌓아올려 또 하나의 현대적인 진경채색화를 펼쳐 보인다"며 "복잡한 현대인의 내면과 다

양한 삶의 양식이 고요하고 묵묵한 색채로 남겨져 우리 모두의 시선을 선정 채색화면에 머무르게 한다"고 말한다.

조선대 미술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양 작가는 지금까지 9차례 전시회를 열었으며 전남도미술대전 대상, 한국화특장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선묵화, 현대한국 화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ACC, 27일 이정희 교수 '화인 음식이야기'강연

중국 요리집은 어떻게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대중적인 외식공간으로 자리 잡았을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우리 안의 화인 음식이야기' 세 번째 오픈 특강으로 중국 요리집 관련 강연을 마련했다. 27일 오후 3시 ACC 라이브러리파크 북라운지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이정희(사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이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한국 중국집의 역사와 화인의 역할'을 주제로 생업을 위해 중국집을 경영한 화교들의 삶을 소개한다. 또한 근대 시기 중국집 대부분이 화교들에 의해 어떻게 경영되었으며, 규모가



큰 요리점부터 작은 호떡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지녔던 중국집의 역사를 다채롭게 조명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8월 특강은 28일(오후 3시) 노봉언 만화가가 '음식은 기억과 함께-초년의 맛'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

## 피아니스트 조성진 8월31일 연세대 노천극장서 공연

### 네이버TV 실황 중계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내달 31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하는 공연이 네이버TV로 온라인 실황 중계된다.

클래식공연기획사 크레디아는 '크레디아 프롬스- 조성진 그리고 쇼팽' 공연이 네이버TV의 후원라이브를 통해 실황 중계된다고 26일 밝혔다.

실황 중계는 네이버TV의 크레디아TV

채널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권은 27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조성진은 연세대 노천극장 공연에서 앙상블 '크레메라타 발티카'와 함께 '쇼팽 협주곡 1·2번'을, 클라리네스트 김현과 함께 폴랑크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조지 거슈윈의 '프렐류드 1번'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의 오프라인 티켓은 지난 14일 판매 시작 직후 전석 매진됐다. /연남뉴스